

여름은 나리의 계절이다

글·편집 / 이 병 함 해설가, 숲 생태 칼럼니스트
(전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장 역임)

여름의 야생화로는 나리류가 으뜸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어느 야생화보다도 이글거리는 햇빛만큼이나 꽃잎의 붉은색이 강렬하여 여름이라는 계절에 어울리고 오랜 세월동안 우리와 같이 살아온 자생식물이기 때문이다.

나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참나리를 위시하여 종류가 하도 많아 다들 나리류라고 뭉뚱그려 표현하기도 한다.

여러 가지 나리류에는 꽃이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하늘을 보고 있으면 하늘나리, 옆으로 보면 중나리, 땅을 바라보고 피면 땅나리 등으로 구분하는데 나리중 제일 먼저 꽃을 피우는 털중나리, 비교적 개체수가 많은 하늘말나리 등이 이와 같은 분류에 의거 붙여진 이름이다.

불교의 고승이셨던 성철스님은 생전에 중생을 깨우치기 위해 3,000배를 하여야 친견을 허락하셨다고 한다. 거기 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높은 산에서만 자생하는 관계로 한여름 더위에 몇 시간은 좋게 땀을 흘려야만 모습을 드러내는 고고한 자태의 솔나리는 멸종위기식물이기도 하다.

야생의 참나리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농사일로 뜨거운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에 땀에 젖은 삼배 적삼을 걸친 젊은 날의 아버지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지아비를 따라 밭일을 거들다가 동생에게 젖을 물리는 어머니의 강인한 생명력이 느껴지기도 한다.

여름철 산에서 땀감을 장만한 아버지가 지게위에 나리꽃 한 움큼을 엮어 사립문을 들어서면 나리는 신이 난 듯이 너울너울 춤추며 우리에게 다가온 친숙한 야생화였다.

참나리는 백합과 식물의 특징인 땅속에 여러 겹의 비늘줄기로 된 알뿌리가 있으며 줄기와 잎 사이에 살눈(珠芽)을 가지는데 이것이 떨어져 새로운 개체를 얻을 수 있으므로 번식



이 쉬운 식물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인지 농촌의 사립문 주위에는 한낮의 햇볕이 무색하리만치 강렬한 나리꽃이 무리지어 피어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도회지 사람들은 백합과 식물로 우리나라 자생종인 나리는 몰라도 원예종으로 개발된 백합꽃은 잘 알고 있는 실정이다. 꽃집에서 절화용으로 많이 거래되고 꽃바구니 등으로 자주 보아왔기 때문일 것이다.

로열티를 물어야 하는 백합보다야 우리의 자생종 나리의 관상가치가 뛰어나다고 할 것이다.

오랜 세월 우리와 친숙한 나리를 우리 힘으로 개량하여 공원에, 가로변에 심고 절화용으로 상용화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본다.

여름은 나리의 계절이다.

그러나 나리꽃이 주변에서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면 제아무리 무더웠던 여름도 아침저녁 서늘한 바람이 부는 가을의 문턱에 들어 설 것이다. **山林**

◆ 사진설명

- ① 나리류 중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털중나리
- ② 높은 산에만 자라는 멸종위기식물 솔나리
- ③ 하늘말나리로 잎이 둘러난 것이 특징
- ④ 비교적 주변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참나리.

